

## 심의결정에 참여한 윤리위원

### 위원장

신 성 택 (변호사 · 전 대법관)

### 윤리위원

성 병 옥 (독자불만처리위원 · 전 중앙일보 주필)

장 명 국 (내일신문 사장)

이 현 락 (경기일보 사장)

김 우 석 (중앙복스 사장 · 전 중앙일보 부국장)

김 형 기 (조선일보 논설위원)

성 기 철 (국민일보 카피리더)

윤 영 미 (한겨레 수도권팀장)

박 용 조 (진주교육대학교 교수 )

김 광 현 (한국신문협회 광고협의회 회장)

이 연 배 (서울YWCA 회장)